

경기도민 무시하는  
'경기도의회'의 계속된 파행' 규탄  
기 자 회 견

- 일시 : 2010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앞
- 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 . 사 회 :
- . 항의발언 :
- . 기자회견문 낭독 :
- . 질의 및 응답

\*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양당 항의방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기자회견문

현재 경기도의회 정례회의가 한나라당이 모든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상호간의 다툼으로 정쟁만을 일삼고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여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지켜보는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경기도의회를 지금까지 모니터하면서 묵묵히 지켜봐왔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7월 원구성 초기부터 파행으로 진행되더니 8월, 9월 매 회의마다 파행의 연속이었고 제대로 일정을 지키면서 의회가 진행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즉, 매 회의때마다 한나라당은 원구성문제과 4개 특위구성문제, 의원발언 문제 등 사사건건 전제조건을 내걸고 경기도의회의 의사일정 발목잡기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급기야 지난 9월 1일에는 8월 20일에 한 도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하여 의사일정을 가로막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거농성을 풀고 참여의사를 밝히더니 또다시 경기도의회 의장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고 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코메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양당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이상 사사건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아내는 과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양당 대표를 비롯한 책임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 도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파행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는 양당 간의 명분싸움만 일삼는 소모적인 논쟁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도민과 민생우선의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신속히 의사일정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경기도정에 대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도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명분과 말싸움만을 일삼는다면 의정비 반환 등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9월 9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